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5명 합작 '숲 스트라이크'… 졸인가슴 뻥뻥뻥~

지난 30일 안산 호계체육관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볼링 5인조 결승에서 박종우(광양시청·왼쪽)가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자 팀 동료들이 환호하고 있다. /인천=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여수 최복음·박종우 볼링 5인조 金

최, 개인전 노메달 부담 훌훌~

박, 개인종합 우승까지 '2관왕'

"남자 볼링의 자존심을 세워서 행복합니다."

여수출신의 최복음(27)·박종우(23·이상 광양시청)가 지난 30일 안양 호계체육관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남자 볼링 대표팀 5인조 경기에서 대회 2연패를 달성하며 환호했다. 대표팀의 '막내' 박종우는 개인종합 우승까지 차지하며 2관왕에 등극했다.

자신의 첫 아시안게임에서 2개의 금메달을 동시에 목에 건 박종우는 "정말 좋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대회 준비를 하면서 일도 많았고 정말 많이 힘들었다. 또 앞선 경기들에서 1위를 하고 있다가 뒤에 역전을 당하면서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렸다. 3인조에서 11위를 하다가 동메달을 따면서 분위기가 많이 올라왔다. 경기를 앞두고 방에서 형들과 꼭 이겨보자고 파이팅을 외쳤는데 5인조와 개인종합 금메달까지 따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최복음에게도 마음고생을 털어낸 빛나는 금메달이다. 광저우 아시안게임 3관왕,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라는 부담감이 최복음의 어깨를 무겁게 했다.

최복음은 "즐기자는 마음으로 하자고 했는데 대회 준비하면서 경기장 여건 등이 쉽지 않았다. 그래도 목표했던 5인조에서 남자 볼링의 자존심을 세웠다는 것이 기쁘다"고 밝혔다.

누구보다 서로를 잘 아는 동료 사이지만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개인적인 문제로 서먹했었다는 두 사람. 그래서 힘 합쳐 만든 이번 금메달은 더 값지다.

형 최복음은 "종우는 친동생이나 다름없는데 경기를 앞두고 마음이 무거웠다. 잘됐으면 하는 마음이었고, 3인조에서 첫 메달을 땄을 때는 내가 눈물이 났다. 5인조에서 힘을 합쳐 금메달을 이뤄서 감격스럽다"고 밝혔다.

박종우는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부모님 생각도 나고 여러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이 많이 났다. 내가 볼링을 시작하고 지금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신 김정보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일단 휴식을 취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리고 세계선수권 5인조에서도 형들과 함께 꼭 금메달을 따서 함께 환호 하겠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두 사람의 목표는 남자 볼링의 자존심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세계 정상에서 포효해왔던 여자 대표팀에 비해 한 걸음이 부족했던 남자 대표팀. 한국 볼링의 '대들보' 최복음과 '신성' 박종우는 남자 대표팀의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는 각오다.

최복음은 "2004년 처음 태극마크를 달았는데 남자팀이 약하구나 더 강한 한국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 남자 볼링 선수 처음으로 체육훈장 청룡장을 받고 싶다. 남자 볼링의 역사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대회 11일째인 지난 30일 오후 8시 현재 한국은 금메달 50개, 은메달 53개, 공메달 58개로 중국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인천=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볼링 이영승 "엄마와 함께 해 더 좋아요"

AG 첫 출전 은 1·동 2

엄마는 심판으로 참가

"더 큰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여자 볼링 대표팀 막내 이영승(18·한국체대)의 첫 아시안게임이 은메달 1, 동메달 2개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곡성 출신의 이영승은 지난 30일 안양 호계체육관 볼링장에서 열린 여자 5인조 경기에서 이나영, 정다운, 김진선, 손연희와 함께 합계 6048점(평균 201.60점)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마스터즈 경기가 남아있지만 5인조 경기 이영승이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뛰는 마지막 경기였다.

이영승은 "대회 처음에는 많이 떨렸는데 언니들이 편하게 해주셔서 마무리 잘할 수 있었다. 다음에는 큰 경기에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나라 선수들과 볼을 치고, 훌륭한 선수들 사이에서 경기를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다. 더 큰 사람이 된 것 같다"고 아시안게임 참가 소감을 밝혔다.

이번 아시안게임이 더욱 의미 있었던 것은 스승이자 엄마인 윤희경(46) 전남조리과학고 볼링부 코치와 함께 했다는 것이다. 윤 코치는 이번 대회에 심판으로 참여했다. 가슴 떨리는 큰 무대였지만 엄마가 있어 든든했던 이영승이다.

이영승은 볼링가족으로 유명하다. 이성민(47) 곡성중 볼링부 코치가 아버지, 남동생 이원석(17)도 전남조리과학고에서 볼링선수로 활동하고 있다.

부모님의 볼링 감각을 그대로 물려받은 이영승은 '타고난' 볼링선수이기도 하다. 딸이 대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칠 영(映), 오를 승(昇)으로 이름을 지어준 부모는 사주에 맞춰 제왕절개를 하는 정성까지 들였다.

곡성 출신 볼링 국가대표 이영승(한국체대·오른쪽)이 지난 30일 경기 안양 호계체육관 볼링장에서 열린 2014 인천아시안게임 여자 5인조 경기를 마치고 어머니 윤희경(전남조리과학고 코치) 심판과 미소 짓고 있다. /인천=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부모의 바람대로 고등학생이던 지난해 태극마크를 단 이영승은 첫 아시안게임에서 세 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영승은 "집안 분위기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볼링을 하게 됐다. 처음 참가하는 큰 대회였는데 엄마가 옆에 계셔서 든든했다. 하던 대로 편하게 하면 된다고, 평소처럼 하면 잘 칠 거라고 격려 해주셨다"고 말했다.

대표팀 막내로 치른 아시안게임. 이영승은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 첫 3관왕에 오른 이나영 등 쟁쟁한 선배들을 통해 미래 자신의 모습을 그릴 수 있었다.

/인천=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아시아는 인천을 기억할 것"

4일 폐막식…16일간 기록 영상·MVP 시상 등

'45억 아시아인의 축제'로 19일 개막해 열전을 벌인 인천 아시안게임이 10월4일 폐막식과 함께 끝을 맺는다.

임권택 총감독과 장진 총연출이 준비한 폐막식은 인천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10월4일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맞이 행사'로 시작된다. 본 행사는 오후 7시부터 2시간30분간 펼쳐진다.

폐막식 행사의 주제는 '아시아는 이제 인천을 기억할 것입니다'로 정해졌으며, 오후 7시를 앞두고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45개 회원국을 상징하는 45초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이어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로 구성된 레인보우 합창단의 합창과 국립무용단, 국립국악원, 국기원 등의 공연으로 정들었던 아시아 친구들과의 이별을 준비한다.

선수들이 만난 16일간의 인천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개되고, 선수단이 개막식 때와는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입장해 폐막식 분위기를 끌어올리게 된다.

이후 대회 기간에는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감독과 코치, 스태프들의 기쁨과 환희, 눈물 등이 담긴 특별 영상이 이어지고 대회 최우수 선수(MVP)에게 주는 삼성 MVP 시상식이 열린다.

김영수 대회 조직위원장과 셰이크 아흐마드 알 파하드 알사바 OCA 회장의 공식 연설 및 폐회 선언이 끝나면 대회기가 내려지고 다음 대회 개최국인 인도네시아로 대회기가 이양된다.

다음 하계 아시안게임은 201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다.

폐막 축하공연은 빅뱅이 맡는다.

/연합뉴스

오늘의 아시안게임 (1일·수)

▲**육상**=박칠성(삼성전자·영암 출신) 50㎞ 경보(7시·송도센트럴파크), 배찬미(광주시청) 세단뛰기 등(9시·아시아드주경기장)

▲**농구**=여자 4강전 한국-일본(17시30분·화성종합경기타운) 남자 4강전 한국-일본(19시45분·삼산월드체육관)

▲**볼링**=최복음·박종우(이상 광양시청)·이영승(한국체대·곡성 출신) 남녀 마스터즈(9시·안양호계체육관)

▲**체조**=리듬체조(18시·남동체육관)

▲**핸드볼**=김온아·김선화(인천시청·무안 출신) 여자 결승전 한국-일본(18시·선학핸드볼 경기장)

▲**하키**=김현지(목포시청)·안효주(인천체육회·목포 출신) 여자 결승 한국-중국(19시·선학하키 경기장)

▲**수영**=유병진(전남수영연맹)·윤영관(한국체대·광양 출신)·이현우(〃·여수 출신)·추민종(〃·광양 출신) 남자 수구(14시·드림파크 수영장)